

전남교육청,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 본격화

돌봄부터 진로·진학 통합 모델 영암 시범지구 선정 예산 지원 단계적 확대...전면 시행 목표

전남도교육청이 '영암군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 시범 운영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는 교육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성을 갖는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돌봄부터 진로·진학까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모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영암군을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 1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 확대를 거쳐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최근 영암 가야금산조기념관에서 열린 '영암교육공동체 연수' 자리를 통해 '영암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 조성 의지를 밝혔다.

자율형 미래교육지구는 교육과정과 인사, 행정, 재정의 자율성을 갖는 미래교육 및 미래학교 모델을 정립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및 학령 인구 유출로 인한 전남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게 전남교육청의 복안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생 주도적인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독서·토론 기반 역량교육 운영 ▲디지털·AI 맞춤형 역량교육 운영 ▲지역 기반 유·초·중·고 연계 교육 ▲온라인학교, 공유학교 등 운영 ▲학교업무 경감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미래형 교육거버넌스 내실화 ▲돌봄부터 진로·진학까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교와 지역의 자율성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최근 영암가야금산조기념관에서 열린 영암교육공동체 연수에서 미래교육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다. 영암지원청은 교육장이 교육감의 권한과 자

율성을 대폭 위임받아 지역의 미래교육 방향을 설정한다. 도교육청은 선도지구에 교육장 3년

임기보장, 충분한 예산·인력, 지역 장학사 선발 등을 지원한다. 또 연구학교 지정권과 과정(센터장) 인사 추천권, 자율감사제, 자율적 조직 구성·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위임하며 민·관·산·학 교육거버넌스 구축과 돌봄부터 진로·진학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부여한다.

도교육청은 2023년 전남교육 발전과제인 '혁신학교를 넘어 미래학교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의 변화를 담은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를 지정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2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및 장학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 공모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학교는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교육 지원청은 연결과 확장의 학교교육 지원, 지역교육생태계는 지역 중심 미래교육 체제 구축에 나서며 도교육청도 지역과 함께 고민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권한을 과감하게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이양해 지자체 협력 파트너로서 서로 협력하는 선도지구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학교 모델을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청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조선대, 대학-지역 벽 허물고 동반성장 나선다

5개 구청과 업무협약

조선대학교가 최근 광주시 5개 구청과 손을 맞잡고 대학-지역간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나선다.

조선대학교는 최근 광주시 5개 구청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선대가 대학과 지역의 협력·상생과 교육혁신을 통해 '글로벌대학 30'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대학 30'은 교육부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비수도권 대학 중 경쟁력을 갖춘 10개 대학을 우선 선정 후 4년간 5개 대학씩 20곳을 추가한다.

조선대는 대학과 지역사회간의 벽을 허물고 교육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동·서·남·북·광산 구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기초지자체-대학-산업계 교육·학술·기술 개발분야 활성화 ▲지역 산

업 발전 협업과제 도출 ▲지역혁신기반협의체(FRISE: Foundation for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및 운영 ▲대학 졸업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여건 개선 ▲구민의 생애단계별 역량개발 교육자원 공유 등이다.

민영돈 조선대 총장은 "각 구청과 손을 맞잡고 지역을 넘어 국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대학과 지역이 다양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공유하며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호남대, 청소년 대상 '세상 바꾸는 미디어 챌린지' 진행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는 미디어에 관심 있는 광주지역 고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세상을 바꾸는 미디어 챌린지' 지역청소년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지역청소년 연계 프로그램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고등학생 제작단 10여명과 정광고등학교 미디어 동아리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김유미 교수는 미디어에 관심 있는 지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디어에 대한 과목입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 후 학생들이 미디어를 주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숏폼 콘텐츠(인스타그램 릴스)를 제작했다.

이날 학생들이 제작한 숏폼 콘텐츠는 '세상



호남대 신문방송학과는 미디어에 관심 있는 광주지역 고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세상을 바꾸는 미디어 챌린지' 지역청소년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호남대 제공

을 바꾸는 미디어 챌린지 공모전'과 연계해 학 중 추후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목포대, 3년 연속 해외연수생 전원 취업

국립목포대학교는 2020년부터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남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에서 3년 연속 연수생 전원이 미국 취업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은 전남에 주소지를 둔 청년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적 직무역량과 실무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올해 해외 취업에 성공한 연수생 24명은 물류회사, 화장품연구소, 유통회사 등 14개의 미국 내 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미국 취업자 중 10여 명이 금융회사, 건축회사, 미술품 전문가 등 정교직으로 채용돼 지역 청년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세웅 목포대 인재개발원장은 "최근 3년간 지역 청년의 해외 진출 성과는 목포대

학교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며 "지역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해외 취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대학교에서는 2020년부터 매년 지역인재 24명을 선발해 해외 취업에 필요한 언어·직무능력 향상 교육 등을 실시 후, 미국 내 전공 관련 우수 기업과 매칭해 J1비자를 통해 1년 동안 현지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남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은 6월 중 연수생 규모 등 세부 추진 내용이 확정·공지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졸업생은 오는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목포대 인재개발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황애란 기자

동강대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선정

간호학과 2명 호주서 실습

동강대 국제교류원은 최근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은 전국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전공과 연계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해 전공 실무능력을 키우고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강대는 지난

2010년부터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했다. 선발된 간호학과 서유지·유현서(이상 2년) 등 2명은 오는 8월 말부터 호주 시드니에서 어학 교육을 받고 Chatswood Med Centre에서 병원 등 산업체 현장 실습을 16주 간 소화할 예정이다.

학숙 국제교류원장은 "2년 연속 호주에서 글로벌 현장학습을 진행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해외 전공 실습을 통해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www.hinuri.co.kr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디벨로퍼 그룹 하이누리

하이랜드(주)

(주)누리산업개발

(주)나로디엠씨

(주)하이누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걸을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찾습니다.
모두가 한곳을 바로보고 있을 때 새로운 시선으로 숨겨진 길을 찾아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접근과 전략으로 성공 분양으로 가는길,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그룹 하이누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회장 김 동 기

광주·전남 부동산학 박사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1대, 2대 호남지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 부동산 분양마케팅협회 호남지회장
광주광역시·광주도시공사 자문위원
분양상담사 법정교육 전임강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전임강사